

고추·쌈채소 ... 친환경 작물로 농업 혁신

농협, 새 희망을 연다

광주 임곡농협

광주시 광산구 임곡. 이 곳은 행정구역상 광역 시에 속하지만 실제 모습은 논과 밭이 전부인 여느 농촌 지역과 닮았는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중심가 역시 수십년 전 모습에서 그다지 발전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래전 정부나 지자체의 농어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쩌면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 역시 쇠락의 길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농업인의 활로를 찾아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꾸준히 노력을 해오며 희망을 일구어가는 농업이 있다.

1973년 설립된 전형적인 농촌형농협인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은 9개동 34개 영농회, 조합원 1000여명에 임·직원 20여명이 일하는 ‘미니 농협’이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임곡농협은 특히 도시근교라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해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전초기지의 기능을 담당하려 한다. 이를 통해 쇠락하는 광산구 농촌지역의 활로를 여는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대규모 소비처를 가까이 둔 배후지역으로 친환경 유기농 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 농협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임곡농협은 잘 사는 농협으로의 활로를 ‘친환경 유기농’에서 찾고 있다. 임곡은 과거 수박이나 무, 배추 산지로 유명했지만 이들 작목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가격등락폭이 심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임곡농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작목으로 고추와 쌈채소, 딸기, 감, 양파를 제시했다. 근거리 소비처를 둔 덕분에 이들 작목은 웰빙 문화 확산 분위기 속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임곡농협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꾸준히 노력으로 위기의 농촌에 희망을 일구어가고 있다. 기재만 조합장과 직원들이 창구에 나와 환한 모습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임곡농협 제공>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인대학 운영 흡사리기 주력

가스판매소·주유소 운영도 성과

또 작목전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위한 농업 지원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 함께 농업인대학을 운영해 흡사리기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깨워 나가고 있다. 임곡농협이 매년 퇴비와 유기질 비료 공급에 노력하고, 모판용 상토지인 사업에 신청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쌀농사 대부분이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대규모 친환경 벼 재배

단지(41ha)를 운영해 수익을 높여가고 있다.

임곡농협은 정이 살아있는 농촌공동체를 지향하는 만큼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비록 여수신 규모는 타 지역 경쟁 농협에 뒤처지지만 조합원 건강검진비 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농자재판매장과 농기계서비스센터는 다른 농협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가스 판매소와 주유소(면세유)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성의 임곡농협 전무는 “가능성 없는 뒤처진 지역이라는 자책을 버릴 때 농업과 농협의 혁신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친환경 쌀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자구노력을 계속하다보면 누구나 살고픈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업인·조합원 함께 살 맛나는 조합 만들것”

기재만 조합장

“상식이 통하며 살 맛나는 조합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조합원과 함께 현실하고 내실있는 모범 조합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 농협 중 이례적으로 농협 직원 출신으로 전·현직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된 기재만(50)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작은 소리도 마음속 깊이 담고 농업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믿음직한 조

합의 일꾼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기재만 조합장은 “평직원 출신이 1000여명의 조합원을 이끌 수 있겠느냐 등의 만류도 만만치 않았고, 선거도 힘들게 전개됐지만 이제 분열의 양극을 흘려 털어버리고 평소 농협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기재만 조합장은 “황룡강 일대 친환경 쌀 재배단지 성과를 확대하고 농한기 특



작 작목인 우리밀 생산도 점차적으로 늘려 농업인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만 조합장은 또 “조합원들이 신선한 우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라며 “농기계센터와 농자재판매장의 서비스도 강화해 농업인과 조합원을 주안으로 섬기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두·감자·고구마 등 9개 농산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선정

농식품부, 하락분 90% 보전

대두, 감자 등 9개 농산물이 FTA 피해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회를 열어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을 보고 받고 지원 품목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수입량과 가격 등 실적치가 근거가 됐으며 대두, 감자 외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밥 등이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직불 대상으로 결정된 품목은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옥수수과 녹두도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지만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해 지급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밥 등 5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확정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더 이상 과수나 축산 등의 재배나 사육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부 2개월간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지역증명서류 및 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리바바 티몰 사이트 한국관 개통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B2C 사이트인 티몰(Tmall)에 한국관 개통식을 가졌다. 이 날 개통식에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와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馬雲)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aT 김재수 사장,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이 참석해 티몰(Tmall) 한국관 오픈 기념식이 진행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B2C 사이트인 티몰(Tmall)에 한국관 개통식을 가졌다. 이 날 개통식에는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와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馬雲)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aT 김재수 사장,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이 참석해 티몰(Tmall) 한국관 오픈 기념식이 진행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어기 가격 안정위해 비축 수산물 7000t 방출

명태 3277t·오징어 2588t

해양수산부는 5~6월 금어기를 맞아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7000t을 방출한다고 19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명태 3277t, 오징어 2588t, 고등어 481t, 갈치 387t, 조기 117t, 삼치 150t 등이 방출 시기는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방출 수산물을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잔여 물량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방출 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비롯해 수협 바다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에서 시중가보다 10~30% 산 가격으로 수산물을 살 수 있다.

고등어는 250g 기준으로 650원으로 시중가격 대비 16%가량 저렴하고 명태는 700g 기준으로 1600원으로 시중가격보다 21% 싸다.

이와 함께 이 시기를 틈타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광주선불폰·중고폰 북구 중흥동 376-7 동부교육청 건너편 신용불량, 통신연체, 무조건 개통 가능 선불 1만 충전시 2만원 추가 충전+유심카드 무료 ☎010-3070-8309 카톡 conta020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시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다나베음르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1구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뚫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장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출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혜, 풍수, 사주연구사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중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상실옆)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욱희 ☎010-3225-2735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똥이레 동구 대외동 10-1 바다장어, 찞不理, 봉장어, 사브사브, 돌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척추교정원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 전신경락 ☎010-8827-7799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생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27번가 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구)동구청 뒤 훈연바베큐, 기계떡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 ☎062)223-272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직명, 개명, 시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